

“군사쿠데타 맞선 의로운 동문 정선엽 기억할 것”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추모식

동생 정규상씨 등 100여명 참석
2017년 소나무 심어 고인 추모
영암서 '내고장 영웅' 추모행사

“고(故) 정선엽 동문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 교정 한편에 자리한 소나무 앞에 수십 개의 국화꽃이 놓였다. 그 옆에는 ‘의로운 동문 故 정선업 병장의 나무’라는 나무 팻말이 눈에 띄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은 조용히 개개를 숙였다. 23살의 나이에 반란군과 교전을 벌이다 숨진 정선업 병장의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는 묵념이었다.

12일 동신고 총동창회는 '12·12 군사 쿠데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을 기리는 '의로운 동문故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을 동신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정 병장은 영암 출신으로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재학 중 군에 입대했다. 제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12·12사태가 발발했고, 정 병장은 반란군에 끝까지 맞서다 총탄에 맞아 숨졌다.

최근 7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서울’



12일 광주 북구 동신고에서 '12·12 군사 쿠데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개최된 가운데 유족과 동문들이 정 병장의 기념식수 앞에 헌화하고 있다.

의 봄' 덕에 정 병장의 이야기가 재조명받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 병장의 동생 정규 상씨와 총동창회 회원 및 동신고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태 정선업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2월12일이 되면 엔지가 숨이 멎힌 듯한 기분이었는데, 오늘 만감이 교차한다”며 “정병장은 지난해가 돼서야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받았다. 차후에

는 계급의 차별 없이 고인에게도 훈장이
추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신고 총동창회는 지난 2017년 십시일반 뜻을 모아 모교에 정 병장을 기리는 소나무를 심은 뒤, 매년 12월 소수의 동문들이 이곳을 찾아 정 병장을 추모해 왔다. 그동안 꾸준히 추모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조출하게나
마 동문들끼리 추모식을 해 오는 등 많이



정선엽 병장을 기리는 기념 소나무.

노력했으나 공론화가 어려웠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모식을 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 병장의 친구 정형윤씨는 “나무를 심고, 많은 사람에게 선엽이 이야기를 했지만 공감받지 못했다”며 “어제 저녁에는 (추모식이 열린다는 생각에) 설레어 잠 한숨 못 잤다. 후배들에게 정의는 언제든 다시 살아나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족 정규상씨도 추모식 참여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정씨는 “(추모식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워낙 오래된 일이지만 영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병장을) 알게 됐다. 또 순직에서 전사자로 바로잡혔으니 다행하다. 반란군들이 잘못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뒤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유족과 동문들은 교내 정 병장의 기념식수 앞에서 헌화하며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조선대는 이날 정 병장의 명예졸업장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현재 정 병장의 유족 인형 정훈채 씨, 동생 정규상 씨와 명예졸업장 수여 방식 등을 논의 중이며 정해지는 대로 1월 중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 병장의 고향인 영암에서도 ‘내 고장 영웅 정선엽 병장 추모행사’가 열렸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선엽 병장 추모행사와 함께 ‘내 고향 영웅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 유족이 명예와 자긍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정율성 공원 반대 집회… 강기정 “글로벌시대 역행”

보훈단체 1300명 시청 앞 시위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미망인회는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보훈단체는 12일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율성은 광주 출신일 뿐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한 공산당 선동대장”이라고 주장했다.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말 공산주의자 정윤희의 실체가 드러난 후, 보

훈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공원 중단 행정 명령 권고에도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25전쟁으로 가족이 처참하게 전사한 후 평생을 피눈물 나는 고통에 살고 있다'며 "공산당 선동대장 정용성을 기념한다는 것은 호국영령 모독이고 보훈 가족에게 아픔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즉각 철회 △공산당 공원 조성 중단
△광주근현대 역사공원 조성 △정율성로
명칭 개정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집회와 관련, 기자회견과 차담회에서 “정유성 반대 집회는 시대착오적인 시위이자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시위다”며 “노태우 정부 때 추진한 이 사업은 광주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0년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율성의 중공공과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정상이 인턴기자**

5.18기념재단 “비자금 회수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5·18기념재단(재단)이 ‘12·12사태’ 44주년을 맞아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자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라며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의 은닉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의
흑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하하고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넘는 부동산
할 수사팀은
것으로 밝
유하고 있는
는 현재 법사
징3법'이 신
다.

강주비 기자

제9회 제일 창업박람회 IN광주

12.14(목) - 16(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

NAVER | 제일좋은전람 ▼

검색창에 제일좋은전람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를 만나보세요!

참가 문의 | T.02-856-1402 E. goodfair@yesexpo.co.kr

제일좋은전람